

# 당 혁신·安風차단 “미흡하지만 성과 있었다”

### ■ 민주 김한길 대표 체제 출범 한달

### 야권맹주 경쟁서도 安에 다소 밀리고 친노계 비협조 계과갈등 해소 역부족

민주당 김한길 대표 체제가 4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다. 김 대표 체제는 지난해 총·대선 패배로 수렁에 빠진 당을 재건하고 박으로 ‘안풍’(安風 안철수 바람)을 차단, 제1야당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안 의원 측과 야권 맹주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분위기며 계과 갈등의 해소도 친노(친노무현)계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정당’을 기치로 민생 정당임을 부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취임 후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 따라 한층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당직 인사 등을 통해 내부 화합과 결속을 내면서 재정비에 차를 가했다.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야 살 수 있다”며 고강도 혁신에 나섰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로 내려가 ‘광주선언’을 통해 대대적 혁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을(乙)을 위한 민주당’을 내걸고 경제민주화에 드라이브를 걸며 정책적 등 종전과는 달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비판에 처우된 강경일변도에서 벗어나 견제와 협력을 조화시키는 유연함을 보였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사건으로 드러난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 문제점 등에 대해선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등 종전과는 달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당직 인선을 놓고는 ‘둘러막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새로운 인물 영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교육지적으로 지명된 최고위원 2명을 당내 인사로 채웠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계과정치 청산과 계과 간 갈등 해소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5·4 전대에서 김 대표와 격돌했던 이용섭 의원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새 당 지도부가 강한 혁신을 보여주지 못해 오히려 지지도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진정성 있는 혁신비전과 로드맵을 하루빨리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혁신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지난 31일 의원워크숍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맞다”며 “더디긴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으로 치면 화장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누가 (대표를) 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대표에 불만이 있으면 침묵을 하면서 도와주고 묵묵히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잘 하면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목숨 걸고 정치 하지만 민주와 싸우는 것 아니다”

### 안철수 “신당 창당보다 10월 재보선 1차 과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3일 독자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데 대해 “내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는 사람들의 열원에 끌려서 (선거) 나왔지만 이번에는 내 선택으로, 자유의지로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자신의 독자세력화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가 된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언급에 대해 “기성정치와 싸우려는 것이지, 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민주당과 싸우려고 했다면 정치에 나올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활동하면 모두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라며 “모두 열심히 해서 경쟁하면 결국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성 정치권에

공정한 경쟁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신당 창당 등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10월(재보궐선거)에 대한 고민이 1차 과제이고, 더 가깝게는 6월 임시국회에 어떻게 임할까라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10월 재·보선에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배출할 계획이나”는 물음에는 “모든 선거구에 다 (후보) 내는 것은 아니다. 형편대로 후보를 낼 것”이라며 “안 되는 데 무리하게 할 생각은 없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권이나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성공을 기원한 뒤 “인사관행이 제일 문제였고, 소통과 권한위임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여야 대표들 “상생합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을 방문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왼쪽).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 당 대표실을 방문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 황우여 “민주·새누리 잘하면 3당 체제로 안 넘어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철수 신당’이 출현해도 불구,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손쉽게 붕괴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안철수 신당 이후 양당 체제 붕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타협하지 못하면 국민은 신당 출현을 기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양당이 최선을 다해 6월 국회에서 정치체신입법을 마치고 국회와 당을 추가로 정비하면 9월 정기국회 전에 국민이 생각

을 정리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잘 다듬어 양당이 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 구태여 3당 체제로, 즉 다당제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을 넘어 새누리당을 위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체제를 잘 정비하고 김한길 대표의 역할이 자리 잡으면 (안철수 신당은) 여론 재조정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대표는 오는 4일 출범 100일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 ‘외교·안보 안정감’과 ‘인사·현안 대처 부족’을 각각 잘한 점과 미흡한 점으로 손꼽은 뒤 “B학점”을 매겼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지구적이고 안정감 있게 꾸준하고 세세한 것을 놓치지 않는 분이기에 지지도도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관해서는 “대선 공약이 지켜야 한다”면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및 북한 문제에 관

련해서는 “개성공단은 무조건 정상화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는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론 제기 가능성에 대해 “재보선 때마다 여야 대표가 물러나 전당대회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개인적 처신의 문제는 소홀히 하지 않겠지만 크게 보면 당은 여야가 안정감 있게 잘 이끌어 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선의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최경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는 같은 당 장준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18대 국회 때부터 통일·고성 지역에서 내리 당선됐다. 이후 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경남도 당위원장, 지역화합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직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10월 재보선 기획단 구성

### 단장에 광주 출신 안규백 의원 임명

민주당은 3일 10월 재·보선 기획단을 구성, 조기대응 체제가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선의 광주 출신 안규백 의원을 10월 재·보선기획단장으로 임명했다고

김관영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안 의원은 당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조직통으로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10월 재·보선 특별위원장은 같은 당 장준석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10월 재·보선 체제 조기 구축에 나선 것은 독자세력화에 가속도를 내는 무소속 안철수 전 의원 측과의 경쟁을 의식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또한 이회희 전 국회의부의 장 상임고문으로, 선진규 전 노인위원장을 고문으로 각각 위촉했다. 아울러 신기남 의원을 참총은 지방정

부 부위원장에, 유성업 의원을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에, 김기준 의원을 인권위원장에, 김영록 의원을 예산결산위원장에, 김재운 의원을 교육연수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또 인터넷소통위원장으로서는 전자금융 전문가인 장화철 싱크에이티 대표를 영입했으며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남인순 의원, 국제위원장으로 박정 과장을 지역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상근 부대변인단은 김영근·김정현·김진욱 부대변인이 유입됐다.

비상근 부대변인단은 노석래 전 부대변인과 이상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조규영 서울시의회원이 포함됐으며 김준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현중 전 대외협력위원장, 이승로 전 서울시장 사무처장은 사무부총장으로 추가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 북경당 한의원

###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일: 휴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080130-광-26%호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동,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 010-2475-0933

SINCE 1988

##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시물,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